

산업화 시대의 윤리와 아동의 재발견

김 성 환*

차 례

- | | |
|----------------------------|-----------------------------------|
| 1. 발견으로서의 아동의 역사 | 1) 어른보다 영악한 아동: 최인호의 「술꾼」, 「모범동화」 |
| 2. 산업화 시대 아동 보호론의 특수성 | |
| 3. 산업사회 속 아동의 위치 | 2) 욕망의 주체로서의 아동: 한수산의 「침묵」 |
| 1) 대중매체와 아동의 위기 | |
| 2) 어린이에 관한 사회적 요구 | 3) 노동과 분노의 주체: 조정래의 「빙하기」, 「진화론」 |
| 4. 산업화 시대의 윤리와 '반(反)아동상(像) | 5. 맺음말 |

국문초록

아동은 근대성에 의해 발견된 주체인 동시에 보호와 훈육의 대상이기도 하다. 근대적 아동은 여러 역사적 단계, 민족적, 공간적 특수성에 의해 새롭게 재발견되는 상황에 놓인다. 발견된 아동이 근대성의 보편적 표상이라면, 재발견된 아동은 시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산업화의 사회변동이 진행되면서 아동 문제가 불거진다. 아동은 대중매체의 폐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 성장했으며, 아동·청소년 노동 또한 특별한 사회적 관

* 인제대학교 강사

심을 끝냈다. 1970년대 아동 보호론은 아동을 성인의 타자로 호명하는 구조였다. 성인의 권력은 대중매체의 폐해를 강조하고 아동이라는 타자를 규정하는데, 부정론의 짝패로서 아동 보호론이 제출된 것이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대화모임’은 1970년대 초 아동의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린이를 위한 우리의 다짐’을 공표한다. 그러나 이는 아동의 주체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을 훈육, 통제하는 성인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따른 대중매체 비판론은 아동교육의 방법론으로 이어졌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아동 보호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970년대 한국 소설은 이와 같은 아동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최인호, 한수산, 조정래 등의 단편소설은 어른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비정상적인 아이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최인호의 「술꾼」, 「모범동화」에는 어른과 다를 바 없는 조숙한 소년이나, 어른을 압도하는 영악한 소년이 등장하여 산업사회의 윤리와 모순을 폭로한다. 한수산의 「침묵」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어른을 속이고 욕망과 쾌락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들은 어른의 기대에 충실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무관한 욕망의 주체임이 드러난다. 조정래는 「빙하기」, 「진화론」 등의 작품을 통해 착취당하는 아동-노동자의 현실을 폭로한다. 아동노동 현장은 착취가 구조화된 산업사회의 축소판으로, 노동하는 아이들은 생계마저 위협받는다. 이런 현실에 대응하여 아동 노동자는 고유한 삶의 윤리를 발견하는데, 그 극단적인 형태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분노이다. 이를 통해 조정래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했다.

주제어 : 발견으로서의 아동, 아동의 재발견, 훈육과 통제, 아동 보호론, 아동노동, ‘어린이를 위한 우리의 다짐’, 「술꾼」, 「모범동화」, 「침묵」, 「빙하기」, 「진화론」

1. 발견으로서의 아동의 역사

아동이 근대적 사유에 의해 발견된 주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일반화된 듯하다. 한국에서 ‘어린이’라는 단어가 분명한 기원을 가지는 고안품이라는 사실은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다. 아동뿐 아니라 유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성인에 이르는 자연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근대성에 의해 발명된 개념으로 분석하는 고고학적 연구는 ‘발견으로서의 아동’ 담론의 핵심 근거이다.¹⁾ 이러한 근대성론은 발견-발명 이전과 이후의 격차가 서구에 비해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동아시아에서 특히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 도입된 근대성 담론이 전통 사회에 내재한 영속성을 단절하고 체제를 전복시킨 역사로 인해 근대의 특이성(singularity)이 더욱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대의 특이성은 기원으로서의 근대를 인식하는 데 장애로 작동하기도 한다.²⁾ 근대성이 당도하여 새로운 질서를 수립했을 때 그것이

1) 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 『지식의 고고학』 등에서 비롯된 ‘고고학적 탐색’은 상식화된 근대 제도와 인식이 문화적 기원과 축적을 지닌 역사적 산물임을 강조한다. 미셸 푸코 이후 인문학의 과제는 이를 탄생시킨 지배적인 인식체계, 즉 에피스테메를 발견하는 데 있다. 고고학적 전환은 인문학에서 문학연구의 영역을 확대시키며 다양한 대상들을 발견했다. 일상의 작은 영역과 신체의 미시적 반응들이 미시사, 문화연구 등의 이름으로 인문학의 대상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기획의 핵심 중 하나는 근대 제도의 해체이다. 당연한 것으로 경험되고 있는 제도들이, 실은 근대의 역사성이 만들어 낸 산물이라는 사실을 통해 근대성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이데, 그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인간성의 본질인 개인의 신체와 그 집합체인 가족 제도일 터이다. 이 글의 대상인 아동-어린이 역시 근대의 산물로서 재인식되는 대상으로 올라선다. 필립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문지영 역, 새물결, 2003)은 아동 개념의 역사성을 논저로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 프레드릭 제임슨은 모더니티를 개념이 아닌 서술의 범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모더니티는 포스트모던이라는 파열의 가능성 없이는 의미화되지 못하는 특이성(singularity)을 가진다. 즉 명백한 역사적 시점(時點)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체성의 범주에서만 서술되는 것이 모더니티이다. Fredric Jameson, *A Singular*

오래전부터 그러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 즉 과거를 지워버리고 불변의 진리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근대성의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근대에 발명/발견된 개념들은 이와 같은 특이성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하는 아동-어린이의 존재 또한 그러하다.³⁾ 가라타니 고진의 논의를 보더라도, 발견으로서의 아동은 어느 근대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전복과 은폐의 매커니즘 속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아동’이란 보편성을 가진 문화적 실체로 여겨지며, 아이를 어른의 세계로부터 분리한 후, 어른들이 바라는 ‘진정한 아동’의 개념이 상정된다. 가라타니는 아동 개념에 숨겨진 역사성을 발굴했다. 그는 아동이 발명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동의 발명을 통해 ‘어른됨’, 혹은 ‘사람됨’의 또한 발명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게 되는 역사성을 강조했다.

‘아동’이라는 것은 본래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것일 뿐, ‘현실의 어린이’, 또는 ‘진정한 어린이’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미메이가 그려낸 ‘아동’의 전도성을 비판하는 것은 이 전도의 성질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것을 더 한층 은폐시키는 일일 뿐이다. 아동 문학사가가 아무리 극명하게 메이지 시대 아동 문학의 기원을 밝혀 보아야, 그것에는 본질적으로 ‘기원’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⁴⁾

여기서 언급된 아동과 아동문학의 기원은 근대성의 위용을 말한 것인데, 그것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절대적인 질서로 자리 잡기까지 무엇을 발명하고, 무엇을 은폐했는지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문학의 근대성 연구

Modernity: Essay on the Ontology of the Present, Verso, 2002, 1장 참조.

3) ‘아동’, ‘어린이’라는 명칭은 동일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신어(新語)로, 이 말에 내포된 근대성을 강조하는 논점에서는 한자와 순우리말이라는 차이를 제외하면 동의어로 교환될 만큼 유사하다. 이 글에서는 근대에 발견된 주체를 가리키는 말로 ‘아동’을 택했지만, 인용된 자료와 더불어 서술할 때에는 ‘어린이’도 함께 쓰기로 한다.

4)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아동의 발견』,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153쪽.

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아동은 근대성에 의해 발견된 것이므로 아동문학론의 검토는 발견된 아동을 다시 검토하는 일, 즉 재발견으로서의 아동-아동문학을 수립하는 작업이 문학사의 임무라고 가라타니는 말한 셈이다.

한국의 근대 아동론 역시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린애’, ‘아이’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지칭되는 대상에서 ‘아동-어린이’라는 개념과 어휘를 추출해낸 사고의 기저에는 근대적 인간상이 자리한다는 논증은 앞의 인용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르면 근대적인 ‘사람됨’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자 미완성의 형태로서의 아동은 전근대적 사고 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가라타니 또한 메이지 이전 일본 유교의 계급적 성격을 기초로 근대화 전후의 커다란 균열을 발견했다. 유교적 소양이 일본 전통사회와는 무관하며 모더니티의 사유가 일본 사회를 지배했을 때 유교적인 소양은 소급되어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발견이라는 말은 모순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학사적 쟁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교적 소양은 성격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 생활세계에서 한국의 유교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지배적 담론으로 기능해왔으며, 정치체제의 급변과는 달리 유교적 덕목들은 비교적 온건하게 근대화에 적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문제 또한 그러한데, 전래의 관습에서 아동이 노동력이나 소유물로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덕목 속에서 나름의 가치를 내재한 존재로 인정받았다. 그런 점에서 근대의 과도기를 겪은 문화적 산물들, 즉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화나 일상에서 실천되는 관습과 행동양식에서 아동의 지위와 개념이 전복적인 단절을 겪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⁵⁾ 물론 근대화라는 변화가 아동의

5) 심경호는 조선후기 아동론과 근대의 아동론을 비교하면서, 전자가 아동을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정서적 보살핌의 대상으로 보는 데는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심경호, 『전근대 시기의 아동관과 아동의 문학』, 『창비어린이』 제5집, 창작과비평사, 2007.) 이 논의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전근대와 근대의 격차가 아니라 두 시기의

본질을 재정립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아동이 근대 전환기를 거치면서 타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가부장적 질서 내 아동의 지위가 근대화 이후에도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근대 세계가 요구한 생산성 담론이 하층의 아동에게 착취의 효과를 발휘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아동 담론은 근대의 단절론 이상의 논의를 요구한다 하겠다.⁶⁾ 다시 말해 ‘발견으로서의 아동’이라는 주제는 근대성의 특이성을 증명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가 만든 여러 물질적, 문화적 제도의 성격과 연결지어 그 사회의 근대-아동의 특수성을 구명하는 세심한 시선을 필요로 한다.

근대성이 논의의 출발점이라면, 역사적 조건을 탐색하는 일은 발견된 아동의 성격을 파악하는 실질적인 방법론이다. 예컨대 전근대 유교 질서 하의 아동론과 근대의 아동론이 지향하는 가치의 차이를 확인하고, 차이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이 필요하다. 조선 후기 유교적 도덕률 속에서 아동은 그리움과 연민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아동 중심의 근대 가족 개념과 완전히 상치되고 단절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⁷⁾ 이는 곧 대상으로서의 아동에 요구되는 가치의 전환을 의미하는바, 정서적 인식대상에서 제도의 실천대상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여기에는 이른

아동론 모두 아동을 어른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미완의 대상, 즉 어른의 타자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선 논자의 단절로서의 아동론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논점에 따라서는 차이보다는 동질성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다.

6) 근대적 아동 개념의 특이성이 두드러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근대와 전근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아동의 탄생』에서도 볼 수 있다. 아리에스는 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아동 개념의 격차를 강조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류문화의 보편성 속에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예컨대 아동의 성기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농담과 유희가 전근대 시기에 흔히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연령을 무시한 성적난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아동을 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문화인류학적 원칙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 『아동의 탄생』 1부 5장에서 전근대의 관습이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 장면에서 외설적인 암시는 보이지 않는다.”(『아동의 탄생』, 192쪽)라고 말한 데서 보듯, 아동 개념의 변화는 시대의 에피스테메의 변천을 뜻한다.

7) 심경호, 앞의 글, 211-219쪽 참조.

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한국의 특수성이다. 자연스레 논의는 근대성론의 일반 구조 속에서 개별적인 가치의 실현태로서의 아동을 재발견하는 데로 나아간다. 유교적 덕목과 근대적 가치 모두 추상적인 형태의 아동을 현실에 소급하는 것이므로, 아동담론의 연구는 아동의 발견 이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아동 개념에는 거듭 재발견되는 동력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적 아동의 의미는 전근대의 대응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맞춰 재발견되는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유교가 지배계급의 특수한 사상인 탓으로, 유교적 아동 교육과 근대 교육의 보편성 사이의 격차는 선명했지만⁸⁾, 한국에서 그 격차는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아동은 시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미완성의 존재로서 훌륭한 인격체를 목표로 훈육되어야 할 대상이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아동의 본질적 가치의 발견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된 가치를 실천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의 아동의 재발견 양식에 맞춰야 한다.

발견과 재발견은 시대에 따라 거듭될 수밖에 없다. 소파 방정환의 활동했던 1920년대,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 그리고 21세기의 상황에 맞춰 아동은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 흐름 속에서 근대 아동의 일반성은 각 시대의 요구에 직면하여 특정한 지점에서 아동을 재발견한다.⁹⁾ 이때 재

8)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156-161쪽.

9) 1920년대 방정환의 아동운동 이후, 다기한 시대적 가치가 아동 담론에 투영되었는데 그 중 아동문학은 아동 담론의 주요 매체였다. 식민지 시기에는 식민지 국민의 기획과 아동문학의 문학성이 겹쳐졌으며,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전쟁의 파토스와 윤리,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탈식민지적 비판의식이 아동문학의 공간에 펼쳐졌다. 이와 관련해서, 서동수, 『아동의 발견과 ‘식민지 국민’의 기획』, 『동화와 번역』 16, 동화와 번역 연구소, 2008; 장수경, 『『새벗』 게재 아동서사에 나타난 가난에 대한 기억과 승공의 파토스 - 1960년대 실린 동화·소년소설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2,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발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어른과 대비되는 무차별적이며 균질적인 순수성을 내재한 아동의 특성 때문인데, 이와 같은 아동의 표상은 무엇보다 성인과 아동의 대비를 강조한 동화(童話)와 같은 서사양식의 재현에 힘입은 바 크다.

이 대비는 아동뿐 아니라 성인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동화가 형상화한 아동의 심성은 이를 요구하는 성인의 자질, 즉 ‘어른됨’과도 효율적으로 결합한다. 예컨대 ‘어른을 위한 동화’, 혹은 ‘잔혹동화’ 등의 서사는 동화의 외형을 빌려 현실을 되비추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드러난 것은 일차적으로 성인 세계의 리얼리티이지만, 그것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아동의 심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인의 리얼리티가 강조될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아동의 심성 또한 호출되는 이유는 성인과 아동의 세계가 상호지시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동화 속 백설공주가 사실은 사악한 욕망의 화신이라는 식의 비틀은 현실적 욕망을 완전히 제거한 아동의 주체와 대비될 때 ‘동화’로서 의미를 가진다.

‘어른을 위한 동화’와 ‘잔혹동화’는 정반대의 두 벡터를 가지고 있어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아동의 재발견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힘을 가진 담론화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화를 통해 아동의 재발견은 연쇄적으로 거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황홀한 사기극』에 따르면 동화 『헨젤과 그레텔』은 현실적 상상력에 힘입어 시대의 진실들로 향하는 입구가 된다. 중세 말기 청소년 살인 범죄를 우화(寓話)하였다는 상상에서, 빵을 둘러싼 전(前)자본주의적 사회갈등의 왜곡이라는 추론까지, 이 동화는 여러 시대의 현실과 마주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어린이의 이야기가 언제든 성인의 우화와 설화 속

2013; 김태호, 『1950년대 아동문학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6,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박금숙, 『1960년대 초 아동문학에 나타난 시대 의식』, 『한국아동문학연구』 29, 한국아동문학학회, 2015 등의 논의를 참고.

에서 계속해서 발견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¹⁰⁾

2. 산업화 시대 아동 보호론의 특수성

재발견으로서의 아동이라는 관점은 아동이 발견되거나 발명된 실체라는 사실보다, 시대에 따라 항상 달리 발견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발견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분명한 목적과 계기가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즉 아동은 실천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 의해 형성된 추상적 개념이 실현되는 결절지점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됨’, 혹은 순수성이라는 가치는 사회 전체의 특정 주체와 이데올로기를 수립하기 위한 전제이자 개념적 대립항으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주체화의 이데올로기적 기획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의 개념 또한 이동한다. 아동이 근대 사회와 가정에서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상황에 따라 보호의 방법과 목적, 그리고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동 보호론의 특수성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아동은 단순한 돌봄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시대의 담론에 따라 변화했다. 그 중 눈에여겨 볼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보호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아동은 노동력 공급이라는 현실과 아동 보호의 이상의 길항 속에서 의미화되었다. 아동의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는 1957년 제정된 <어린이 헌장>에서 볼 수 있다. 이 헌장은 1923년 방정환의 <소년 운동의 기초 조건>¹¹⁾의 이상이 독립된 국가 내에서 새로이 정의된

10) 한스 트렉슬러의 『황홀한 사기극』(정창호 역, 이룸, 2003)은 고고학적 연구의 외양을 하고 있어 역사적 사실인지 모른다는 인상을 남기지만 결국 허구적 서사의 경계는 넘지 않는다. 발굴과정과 논증, 그리고 몇몇 도판들은 허구를 위해 고안되거나 서사화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고고학 자체를 허구화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것이다. 아동노동의 경우 방정환은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라고 강조하며, 힘든 노동대신 인격적 예우와 학습, 그리고 놀이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한다. 방정환의 이 선언은 국제연맹의 <국제아동권리선언>보다 한 해 앞선 것으로, 유상, 무상의 노동을 폐하라는 주장은 당시는 물론 <어린이 헌장>장과 비교해도 그 진보성이 뚜렷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적이었던 만큼 현실과의 거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린이 헌장>에서는 유무상 노동의 폐지 대신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헌장 4장은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장이 여러 항목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재차 강조했다만 나아지지 않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1988년의 개정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정되었을 뿐이다.¹²⁾

이런 변화의 근거에는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 1950년대 전후 시기 아동·청소년 노동이 일상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을 폐하지 못하는 데에는 노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현실이 이를 허락지 않은 사정 또한 있을 것이다. 이 불가피한 현실은 두고 헌장은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피상적인 조건만을 부여했다. 그에 비하면 1960-70년대 산업화를 겪은 후에는 아동·청소년 노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 이 향상되었으며 “짐”이라는 표현은 비교적 분명한 뜻을 가진 “나쁜”으로 대체되었다. 나아가 노동에 대한 규제와 보호는 법의 테두리 내로도 들어왔다. 유신시대까지 헌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11) 이는 1923년 어린이날에 배포된 선전문에 실린 것으로, (1)취지, (2)소년운동의 기초 조건, (3)어른에게 드리는 글, (4)어린 동무들에게, (5)어린이 날의 약속 등의 항목이 있다. 이 내용은 1922년 천도교소년회가 주최한 소년보호운동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민윤식, 『소파 방정환 평전』, 스타북스, 2014, 321-342쪽 참조.
12) 이에 관해 비판은 이주영, 『뒷걸음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어린이 문화 운동사』, 보리, 2014를 참조.

은 “소년의 근로”였다. 그러나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연소자의 근로”로 바뀐다. 소년과 연소자의 차이는 미세하지만 분명하다.¹³⁾ 소년과 성인은 배타적 대립항으로 보기 어렵지만, 연소자(미성년자)와 성인은 배타적으로 구분되며, 법률적으로도 명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년’의 노동은 성인 노동과 변별되지 않은 채 은폐 될 수 있지만 ‘연소자의 노동’은 성년의 노동과는 별개로 보호받는다. 이는 ‘노동이 짐이 되지 않음’과 ‘나쁜 노동에 이용되지 않음’의 차이로 표현된다.¹⁴⁾

노동의 사례에서 보듯, 아동의 가치는 물질적 조건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부여되며, 이를 통해 형성된 아동의 존재는 지배적 담론의 실천에 기여한다. 노동의 문제에 등장한 연소자, 혹은 소년이라는 기준점은 실제 노동 현실의 조건 속에서 요구된 아동의 현실이었다. 이 지점이 방정환

13) 아동의 연령에 관한 규정은 범류마다 상이하다. 형법은 소년을 19세까지로 규정하고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리한다. 그러나 아동보호법 상에는 18세 미만은 동일하게 보호되므로, 아동은 18세까지로 볼 수 있다. 어린이라는 말은 더욱 모호하다.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까지를 어린이, 중·고등학생을 청소년, 그 이후를 성인으로 본다. 그러나 1960-70년대에 어린이, 아동의 범주는 변화를 보였는데, 계기가 된 것은 중학교 입시 폐지(1968)로, 중학생까지 어린이로 간주하고, 그 이후를 청소년, 소년으로 부르는 경향도 볼 수 있다. 이 구분의 경험적 구분선 중 하나는 노동가능 연령이다. 입시부담이 없는 중학생은 비교적 자유를 누리지만 이후부터는 학습 혹은 노동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4) 1960년대 이후 노동의 고됨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소년과 부녀자를 들 수 있다. 노동청에서는 이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런 인식이 아동, 청소년 노동에 법률적 제한을 실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노동이 산업화에 필수적인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심정적인 수준에서 관심이 표면화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청 관보 『노동』, 『산업과 노동』이 주관한 ‘소년, 부녀 근로자 근로수기’ 공모를 통해 보호해야할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은 지금껏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유민상·박종석의 연구에 따르면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아동노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없었으며, 1987년 이후 아동노동이 줄어들었으나, 이는 아동노동의 수요가 줄어들어서이지 능동적인 논의와 운동의 결과는 아니었다. 유민상·박종석, 『한국의 아동노동: 아동노동은 어떻게 이용되고, 규제되고, 금지되었는가?』,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1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6 참조.

의 이상과 구분되는 것은 아동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제도 변화와 더욱 긴밀히 연동되었기 때문이다. 즉 정치, 경제의 제도 변화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아동 개념을 현실화했던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아동 개념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는 1960년대 이후 전복적인 변화를 이끈 산업화이다. 산업화는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소비문화라는 새로운 일상의 제도를 탄생시켰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습득감’을 통해 주체성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제도의 습득감은 특히 대중문화의 장에서 청년과 청년문화로 가시화되었는데, 그 토대에 물질적 풍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상상의 수준에서 체험되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경제성장의 산물인 물질적 풍요에 대한 기대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¹⁵⁾ 물질적 풍요를 둘러싼 투쟁은 아동론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가정과 학교, 놀이와 같은 아동을 둘러싼 생활세계에서 산업화의 혜택을 아동에게 얼마큼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아동을 위해 가장 민감하게 고려한 산업화의 산물은 상업적 대중매체였다. 여러 매체 중 텔레비전은 사회와 가족 구조를 변화시킬 만큼 파급력이 강력했던 만큼 그 위해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었다.¹⁶⁾ 텔레비전의 부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보상자’라는 오명이다. 1950년대 미국의 문화연구에서 제출된 바보상자론은 한국에 텔레비전 방송이 본

15) 산업화 시기, 물질적 풍요가 이데올로기화한 경우는 ‘차관’경제의 구조에서 확인되며, 여가, 유희, 레저 등의 문화적 키워드를 통해 산업화 논리가 일상에서 재생산되는 사례를 찾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성환, 『빌려온 국가와 국민의 책무: 1960-70년대 주변부 경제와 문화 주체』, 『한국현대문학연구』 43, 한국현대문학회, 2014. 및 김성환, 『1960-70년대 노동과 소비의 주체화연구: 취미의 정치경제학을 위한 시론』, 『코기토』 81,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참조.

16) 근대의 가족은 텔레비전을 통해 가정의 존재를 체득하기에 텔레비전은 가족매체라 할 수 있다. 즉 텔레비적이 중심이 된 가족 구조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동일한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하나의 가족으로서 동질감을 가진다. 임중수, 『텔레비전 안방문화와 근대적 가정에서 생활하기: 공유와 차이』, 『언론과 사회』 12-1,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4 참조.

격화되기도 전에 수입되었으며, 텔레비전 보급률이 채 10%도 되지 않던 때에도 이미 대중적으로 익숙한 말이 되었다.

부정론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의 파급력은 줄지 않았다. 바보상자론은 대중사회의 전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는 대신, 특정 계층, 즉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근대가족의 권력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남성-아버지와 달리 여성, 아동을 텔레비전에 오염된 존재로 각인시킴으로써 산업화 및 대중문화의 부정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1960-70년대 한국의 텔레비전 부정론의 대상은 여성보다는 아동에게 집중된다. 여성의 경우 텔레비전의 폐해가 식모나 한가한 주부 등 대상이 한정적이며, 성인 여성에게는 능동적인 극복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에 비해 아동에게 텔레비전의 폐해는 무차별적이며 전면적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테돌이’, ‘테순이’처럼 부정적인 신조어는 아동을 목표로 했으며, 학업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순수한 동심을 잃어버린 되바라진 어린이가 되어버렸다는 식의 언론의 비판이 이를 뒷받침했다.¹⁷⁾

이와 같은 부정론은 성인-남성 권력의 타자화 수단이다. 성인의 권력은 텔레비전의 폐해를 강조하고 아동이라는 타자를 규정한다. 그리고 부정론의 짝패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아동 보호론이 제출된다. 1970년대 텔레비전론은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와 연관 깊다. 산업화의 산물, 혹은 정부의 시혜¹⁸⁾로 주어진 텔레비전이 조국 근대화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문명의 이기에 내재한 부정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텔레비전 부정론 극복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사회적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짙었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무엇보다 부정성이 극적으로 가시

17) 텔레비전 부정론에 관해서는 권보드래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 상상, 2015, 4장 참조.

18) 텔레비전의 방송의 개시는 혁명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탓에 “혁명정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도 불렸다. 황우겸, 『바보상자, 방송가의 뒷이야기』, 보진재, 1963, 214쪽.

화되어할 할 것인데, 아동은 부정성을 가장 잘 체현하는 타자적 주체로 부각된 것이다.¹⁹⁾ 텔레비전이라는 유력한 대중매체는 이처럼 부정성 극복의 의례를 통과한 후 국가의 시혜, 산업화의 선물로 받아들여졌다.

텔레비전과 더불어 아동을 위협하는 또 다른 대중매체는 만화이다. 만화는 아동용 매체로 인식되었던 만큼 아동의 훈육과 통제 문제가 논란 핵심을 이루었다. 해방 이후 한국 만화는 어린이에 위해성을 기준으로 줄곧 불량, 저질 시비의 대상이었으며, 아동의 정서를 쪼먹는 사회악으로 묘사되기 일쑤였다. 1970년대 들어 어른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성인만화(극화)가 등장하면서 만화는 아동용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²⁰⁾, 오히려 그로 인해 선정성 문제가 만화를 둘러싼 논란에 추가되었다. 불량만화의 기존 해악인 허황된 공상·괴기 등에 더하여 선정성을 전파하는 타락한 매체로 비판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만화는 ‘순화’의 대상이 되어 수시로 화형식과 같은 관제 캠페인의 대상으로 불려나왔다. 어린이를 위한 만화에는 여러 나쁜 것들을 순화해야 할 터인데, 애정을 포함한 순정, 폭력과 모험 그리고 권모술수 같은 적나라한 어른들의 세계가 그 첫 번째였다.²¹⁾ 그리고 욕설이 난무하는 불순한 언어 또한 특별히 순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²²⁾ 그러다보니 어린이에게

19) 텔레비전을 통한 타자화는 성인-아동 관계뿐만 아니라 도시-농촌의 관계에서도 재현된다. 1970년대 초 농촌에 텔레비전을 정책적으로 보급했지만, 텔레비전이 전한 내용이란 ‘시골은 못살고 가난하다’는 멸시적 시선뿐이어서 결과적으로 텔레비전은 이촌향도의 계기가 되었다. 권보드래 외, 앞의 책, 53쪽.

20) 1972년 『일간스포츠』에 실린 고우영의 연재만화 『수호지』를 본격 성인극화의 출발점으로 본다.

21) 『동심이 시드는 무분별의 현장』, 『동아일보』, 1969.5.3에 따르면 불량만화는 주인공의 용모에서부터 자극적이며, 애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모험심을 자극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1967년의 한 보고서는 남자 어린이는 잔인한 것을 좋아하고, 여자 어린이는 슬픈 것을 좋아한다고 분석했다. (김수남, 『매스컴의 교육성과 비교육성』,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사회발전과 교육이념』(『한국아카데미총서』 6), 삼성출판사, 1975, 74쪽) 이러한 사정은 1970년대 이후로도 이어져 모험과 순정은 지금껏 어린이들에게 위해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허용되는 것은 결국 어른의 말을 잘 듣는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명량만화’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역사, 위인만화’ 혹은 ‘반공만화’만이 남는다.²²⁾

만화가 의미화되는 구조는 텔레비전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즉 대중매체에 내재한 필연적인 문제들, 즉 양적 성장에 따르는 저질, 선정의 논란이 대두될 때 성인과 아동을 분리함으로써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저질, 선정성의 이유로 아동에게 금지된 것은 어른, 혹은 정상의 세계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용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를 통해 아동에게는 순진하고 명량한, 그래서 어른의 말을 잘 듣는 진정한 어린이의 표상을 대중매체 속에 겹쳐놓는다. 그러나 흔히 불량외 요소들로 지목되는 애정과 모험 등의 성격은 그 자체로 결코 불량하지 않다. 그것이 무엇이든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여 훈육을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아동 보호론의 핵심은 어른 세계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량만화 시비는 어린이들을 타자화하며,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속성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만화가 아동을 위한 훌륭한 교육매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짝을 이룬다. 따라서 만화라는 매체에서 부정성을 제거하고 아동들에게 유익한 만화를 개발, 선도

22) 어린이 만화의 언어의 순화는 최근까지도 이어져온 사회적 아젠다이다. 1960-70년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만화의 사례를 보면, 지금의 기준에서는 과격한 언어를 볼 수 있다. 3등신 어린이 인물이 등장하는 명량만화임에도 다름 끝에 “조지다”, “작살내다”, “공갈” 등의 거친 언어가 흔히 쓰였다. 순화론은 이런 사례를 지적하며 순화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는 어른의 언어가 어린이에게 쓰인다는 점이 강조된 것인데, 욕설이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라면 아동 보호론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폐습13: 욕설』, 『동아일보』, 1972.5.8. 같은 기사는 한국 문화의 폐습으로 일상 및 문화 전분야에 일반화된 욕설을 문제 삼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동과 만화의 거친 언어만을 문제 삼는 논조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3) 명량만화의 이데올로기에 관해서는 김대근, 『1970년대 한국 명량만화의 담론분석』,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43,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6 및 박인하, 『한국 명량만화 장르의 형성과 발전 연구』, 『애니메이션 연구』 Vol.8 No.4,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2 참조.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된다. 1960년대 후반, 텔레비전, 라디오, 만화 등의 대중매체의 성장 속에서 매체의 교육성과 비교육성을 동시에 고찰하며, 올바른 아동의 정립을 강조한 아동교육론은 필연적이었다. 상업적이며 저급한 ‘CM송’을 따라 부르게 할 만큼 텔레비전, 라디오의 파급력은 크기 때문에 대중매체의 부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반훈련’이라는 교육양식이 필요하다는 주장²⁴⁾은 분리와 혼육을 통한 타자화의 양식이었다. ‘반훈련’은 대중매체의 악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경쟁훈련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건전하고 훌륭한 어린이 문화를 체득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비판론은 아동에게 밀접한 대중매체의 현실을 인정하지만, 최종적으로 아동에게 부여할 것과 금지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성인으로부터 분리한다. 산업화 시대의 상업성과 통속, 선정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성인사회의 정상성 정립의 전제인 동시에, 그에 의해 규정되는 아동 재발견의 전제가 된다. 이렇게 재발견된 아동이야말로 진정한 산업화 시대의 진정한 아동임은 물론이다.

3. 산업사회 속 아동의 위치

1) 대중매체와 아동의 위기

산업화 시기 아동론의 전개에서 특기할만한 시기는 1972년이다. 1957년 <어린이 현장>이 공포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이며, 이를 기화로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대화모임’에서 <어린이를 위한 우리의 다짐>²⁵⁾을

24) 김수남, 『매스컴의 교육성과 비교육성』, 『사회발전과 교육이념』(『한국아카데미 총서』 6), 삼성출판사, 1975, 참조.

25) 윤석중, 정원식, 이동원, 성내운, 김요섭 등이 초안을 작성하고 각계인사 47명이 서명한 다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모든 어린이는 바르고 슬기롭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으며 교육과 환경에 따라 그들의 앞날이 크게 좌우됨을 명심한다. ②어린이는 어른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독립된 존재이므로 그들이

발표한 해이다. 왜 하필 1972년이었는가?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이 시기를 즈음하여 아동 보호의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으며, 아동 관련 사건들을 명백한 위기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아동문학가 윤석중은 ‘다짐’을 발표할 당시인 1972년을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말하며 위기 의식을 강조한다.

올해처럼 우울한 5월이 또 있을까! 소년애호운동에 앞장섰던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태산같기 때문이다. 아닌게 아니라 올해 어린이의 달은 상처투성이인 애처롭고 잔인한 한달이었다. 강력범의 반을 10대 소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끔찍한 짓이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이라도 해주려는 듯이 만화책과 중국 무협소설에 본뜬 신혼부부살해사건의 지능범은 열일곱살 먹은 소년이었고 남자 스물여덟명과 고속도로에서 놀아난 여자는 열여섯 먹은 소녀였으며, 공일날 학교에 불을 질러 여섯 교실을 태운 방화범은 열한살짜리 어린이로 사랑에 주린 복수였다.²⁶⁾

이에 따르면 1972년 5월은 아동·청소년의 세계가 절멸하는 아비규환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 인용에서 언급된 강력범죄와 성적 문란, 그리고 실화(失火) 등의 사건들은 하나로 엮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의 주인공들을 어린이로 묶기에는 연령대도 폭넓었다. 그럼에도 이들 사건은 아동

마음껏 뻗을 수 있는 배움의 길이 확보되고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능력에 따라 앞길이 열리도록 도와준다. ③어린이교육은 가정·학교·사회의 긴밀한 협동과 차별 없는 지도로 이루어지며 가정의 바른 사랑과 따뜻한 이웃이 더욱 절실함을 밝힌다. ④어린이를 밝고 미더운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본받고 배우도록 어른들이 항상 책임 있는 언동을 하며 환경을 정화하고 도의적인 사회기풍을 조성할 필요를 절감한다. ⑤어린이는 학대·혹사·이용·방임, 그 밖의 모든 비인간적 대우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잘못을 저지른 어린이는 처벌에 앞서 적절히 지도한다. ⑥어린이의 생활을 좀먹는 우리 들레의 모든 공해를 물리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보다 더 싱싱하게 자라도록 보호한다.

26) 『경향신문』, 1972.5.27.

의 현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현실로 거론된다.

문제는 아동·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관점에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대중매체가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사랑에 주린’ 어린이가 불을 낸다는 식의 인과관계가 위 담화 속에 포함되어 있다. 윤석중은 사건의 원인으로 만화와 무협소설을 특정했거니와, 이 외에도 텔레비전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도 흔했다. 일례로 드라마 『백만불의 사나이』나 영화 『슈퍼맨』을 흉내 내다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적지 않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특히 충격을 준 것은 1972년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소년이 만화 내용처럼 환생을 믿고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었다.²⁷⁾ 이러한 기사를 쫓다보면 만화, 텔레비전의 위험성과 인과성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인과성은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어린이 사건·사고의 통계로 객관화시키기도 어렵다. 앞서 말한 바보상자론에서 보듯이, 어른 세계를 경험한 어린이의 ‘심성의 타락’²⁸⁾을 제외하고 텔레비전의 위험성은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할만한 사건이 아니었다. 사망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문의 한 논평은 “인간의 행동이란 그렇게 간단하게 한 가지 원인이나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즉”²⁹⁾ 무턱대고 만화를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체와 사고 사이의 인과성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은 타당하다.

그러나 논평은 잘못된 추론을 문제 삼는 대신 오히려 불량만화 배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는다. 지금껏 불량만화에 대한 인식이 있었긴 하지만, 일회적인 캠페인에 끝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교육, 특

27) 『경향신문』, 1972.2.1.

28) 텔레비전 탓에 동심을 잃었다는 비판은 당시 신문지상에서 흔히 보인다. 예컨대, 계모가 아닌 이상 어머니에게 존칭어를 쓰지 않을 만큼 아이들의 버릇이 나빠졌고 바지보다 미니스커트가 더 예뻐 보인다고거나 어린이 프로그램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모범생이 나와서 재미가 없다는 내용의 일기를 쓸 정도로 타락한 어린이들의 심성은 어른들을 실망시켰다. 『조선일보』, 1973.5.16.

29) 『동아일보』, 1972.2.18.

히 독서교육의 강화를 통해 이러한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논평의 필자는 만화의 불량성과 악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셈이다. 대신 대중문화 및 문학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을 효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점만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 논평은 1970년대 아동론의 핵심을 시사한다. 아동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진지한 매체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와중에 부정적인 대중문화, 대중매체의 문제점을 꼽는 데 힘을 쏟는다. 그러나 이때 아동의 주체성에 관한 논의보다는 아동 사건을 통해 ‘우리-어른’이 어린이들에게 베풀 것은 무엇이며, 어린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 인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윤석중이 말한 ‘특히 우울한 1972년’이란 이러한 논의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인격체로서의 아동의 주체성을 규명하고 위기로부터 아동 주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질과 무관하게 아동을 사회의 요구에 맞게 보호-통제하기 위한 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동이 아닌 어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어린이를 위한 우리의 다짐>의 의의였다.

여기서 아동의 주체성과 관련해서 부연이 필요할 듯하다. 1970년대 당대에 아동의 근대성, 혹은 발견으로서의 아동론이 전개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당시 메타비평보다는 연이은 사고를 두고 현실적인 비판을 제시하는 것이 당장의 요구였을 터이다. 그러나 현실적 요구로 인해 아동의 주체성은 점점 비평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1920년대 이래 아동 보호론은 아동 주체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찾았다. 예컨대 방정환이 주도한 <소년 운동의 기초 조건>이라는 선언에서는 어린이를 무엇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내세움으로써 어른과 다른 존재 의의를 둔다.³⁰⁾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30) 이는 방정환이 소속된 천도교의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내천”으로 대표되는 천도교의 교리와 “어린이의 말이라도 배울 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만한 것은 모시노라”, “아이 치는 것이 하느님을 치는 것이니”와 같은 실천강령은 방정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안경신, 『소파 방정환의 아동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라는 강령과,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등의 실천적 요구는 아동의 본질적인 가치에 관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종교적 의미이든, 사상적 배경을 가지든 구체적 행동에 앞서는 어린이 아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1920년대 아동론의 중요한 의의로 평가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어른의 다짐’에는 이에 관한 논의가 빠져 있으며, 단순히 어린이는 자유로워야 하며 마음껏 놀 수 있어야 한다는 수준의 전제를 바탕으로 한 실천 과제만 강조한다. 그 과제가 종교적, 이념적인 것이 아닌 한 결국에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 현장>이 어린이날에 맞춰 어린이들이 어른 앞에서 낭독하는 의례 말고는 그 어떤 실천도 없이 무의미하다는 비판³¹⁾은 실천과제를 요구하는 현장과 다짐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는 지식인 중심의 아동 운동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데, 대중사회의 특성과 해악에 대한 선구적 이해가 결국 아동 보호를 내세운 이데올로기적 실천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아동 보호론의 내용을 보면 뚜렷해질 것이다.

2) 어린이에 관한 사회적 요구

<어린이를 위한 우리의 다짐>을 제정하기 5년 전인 1967년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아동을 주제로 한 모임을 가졌다.³²⁾ 여기서도 논자들은 어

교육 운동과 사상』, 학지사, 1999, 119-123쪽 참조. 이와 더불어 방정환의 아동 교육운동과 천도교와의 관계는 민윤식, 『소파 방정환 평전』, 스타북스, 2014 참조.

31) 『대화의 모임 보고: 어린이 현장의 오늘』, 『대화』 24호, 대화출판사, 1972.5.

32) 1967년 9월의 대화모임의 발제문으로 정범모, 『어린이의 문화실조와 인간형성』, 황응연, 『무방비상태의 현실분석』, 정원식, 『외면당한 아동복지』, 김연신, 『올바른 아동관과 가정의 역할』, 정확실, 『이상적인 인간상의 기초』, 윤형모, 『학교는 어린이의 것이다』, 현기순, 『나라의 보배는 병들고 있다』 등이 제출되었다. 원고

린이들이 “기형(畸形)”, 혹은 “연옥(煉獄)”과 같은 위기에 놓여있다고 진단 내리며, 그 증거로 입시지옥, 값싼 오락, 만화의 범람 등의 현실을 제시한다. 중학교 입시에 매달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본소 불량만화에 정신을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논의의 특징은 가난이나 부당한 노동과 같은 물질적인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어린이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정범모는 어린이들의 위기상황을 “문화실조”라 명명한다.³³⁾ 육체적인 영양실조보다 정신적, 문화적인 실조가 현재 위기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문화실조는 현재 한국 사회전반에 넓고 깊이 잠재해 있으며, 그것이 어린이들의 문화적, 심리적 자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실조(失調)의 상태라고 진단내린 것이다. 그리고 문화실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제도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도조건적 문화실조이며, 문화조건적 문화실조다. 제도란 근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기구를 가진 제반 활동의 운동체를 말한다. 정치제도, 경제제도 그리고 그들의 활동의 소산과 영향을 포함한다. 아동복지를 위한 정책의 방기, 입시제도는 제도적 문화실조의 예다.³⁴⁾

문화실조는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여러 제도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아동 복지정책과 입시제도가 꼽힌다. 정범모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조악한 악서 외에 좋은 문화적 양식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입시제도에 있어서는 어른들의 무관심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한다. 1965년 ‘무즙파동’³⁵⁾에서 보듯이 입시라는 목적에만 매달렸지, 정작 “아동의 인

는 『사회발전과 교육이념』(『한국아카데미총서』 6), 삼성출판사, 1975에 실림.

33) 정범모, 『어린이의 문화실조와 인간형성』, 『사회발전과 교육이념』(『한국아카데미총서』 6), 삼성출판사, 1975, 22쪽.

34) 위의 글, 23쪽.

35) 1965년 중학입시 문제에서 무즙과 관련된 문제에 복수정답을 인정하면서부터

간적인 면에 대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무관심하다”³⁶⁾라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책과 오락과 같은 여가에서도, 그리고 미래를 결정짓는 학습에서도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말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즙과동’으로 촉발된 중학입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범모 외에도 윤희모, 김수남의 글에서도 볼 수 있다. ‘국6병’이니, ‘4당5락’이라는 말이 생겨난 상황에서 중학입시 폐지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였으며, 1968년 결실을 맺는다.³⁷⁾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화실조론이 어린이를 억압적인 교육 제도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입시지옥과 불량만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이 대화의 논자들은 하나 같이 교육적 효과를 겨냥했다. 입시지옥에서 과도한 공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육적 목적을 강조함으로써 아동을 교육제도 속에 엮매어 두는 모순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논자마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지나친 교육열을 비판하지만 이내 대중매체의 상업성을 통제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중매체의 문제란 무엇보다 어린이의 공부시간을 박탈할 뿐 아니라 공부에 대한 동기와 취미를 감퇴시킨다는 점이며, 불량만화의 저급한 언어를 극복하고 올바른 언어와 상상력을 혼용해야 한다는 비판 논지³⁸⁾를 볼 때, 문화실조론의 전제가 교육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적 효과는 과학적 식견에 의해 구성되고, 과감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서 실천되는 만큼³⁹⁾, 만화와 어린이 읽을거리를 국정화하자는 주장은⁴⁰⁾ 자연스러워 보

불거진 사회적 갈등이다. 이 과동은 국민학생의 과도한 학습부담과 지나친 교육열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그 여파는 1969년 중학입시 폐지로 이어졌다.

36) 정범모, 앞의 글, 27쪽.

37) 중학입시 폐지에 관해서는 단지 입시지옥을 3년 늦춘 것이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화의 모임 보고: 어린이 현장의 오늘』, 『대화』 24호, 1972.5. 그러나 이후 중학입시가 고교평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교육과 관련한 ‘대화모임’의 문제의식은 사회적 합의에 이를 만큼 힘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38) 정원식, 『외면당한 아동복지』, 『사회발전과 교육이념』(『한국아카데미총서』 6), 삼성출판사, 1975, 41쪽.

39) 정범모, 앞의 글, 28쪽.

이기도 한다.

입시지옥은 벗어났지만,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올바른 상상과 반듯한 언어를 가진 어린이란 과연 가능할 것이며, 그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대화 모임’에서는 가난하고 굶는 아이 대신 문화실조에 빠진 아이들을 언급하며, 진정한 어린이 상을 만들어낸 상상력의 범주를 보여주었다. 이 범주는 대개 중산층 이상의 부와 가족구조가 토대를 이루고 있다.

우선 올바른 아동관, 강령을 제정하여 부모의 자세를 바로 잡고 자녀 지도 방향의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이며, 어린이 중심의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고 처벌을 없애고, 식모에게 가사와 자녀를 맡기지 말고, 어린이 옷을 활동적인 것으로 하며 나들이 옷, 놀이 옷도 구별하고 부모는 상호간에 존경하며 자녀 앞에서 비판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야 한다. (중략) 아버지를 가정으로 유치하여 가족 단란의 기회를 만들어 노래, 게임, 등산, 외식 등으로 같이 즐기며 자녀와의 약속은 잘 지키고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일관성 있는 지도와 가정 일과표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좋다.⁴¹⁾

올바른 아동 교육을 위한 가정의 모습은 이와 같다. 부모는 아이들을 입시에만 내몰거나 식모에게 맡기지 말아야 하며, 의복도 풍족히 하고, 가족단위 유희활동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1960년대 말 상상된 스위트홈의 전형이다.⁴²⁾ 이러한 가정의 풍경은 경제성장이 가져다준 상상의 한 장면일 터인데, 실제 현실에서 이를 누릴만한 가정은 흔하지 않

40) 정원식, 앞의 글, 43쪽.

41) 김연신, 『올바른 아동관과 가정의 역할』, 『사회발전과 교육이념』(『한국아카데미 총서』 6), 삼성출판사, 1975, 50쪽.

42) 1960년대 후반, 경제성장의 자신감과 더불어 대중문화론, 유희, 레저, 여가, 취미론 등 경제성장의 과실을 즐길 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이를 예견하는 기사들이 제출되었다. 그 핵심은 가정에 있는데, 자가용,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등의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여, 가정 내 불필요한 노동에서 해방되어 ‘스위트홈’을 꾸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주를 이룬다. 이에 관해서는 김성환, 앞의 글, 2017 참조.

았다. 그럼에도 대화의 논자들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맞는 어린이 상을 제시하였다.

경제성장의 장밋빛 전망을 전제로 꾸며진 가정 속에 등장하는 아동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현실에서 사회화된 아동 정체성과는 무관하다. 식모, 나들이옷, 외식, 등산 등의 이미지가 중첩되는 가족의 일상은 경제성장의 전망이 그려낸 풍경의 일부이며 그 속의 아동은 상상의 존재일 뿐이다. 그 풍경이 산업화의 산물인 것처럼, 스위트홈에서의 아동교육, 아동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논의는 산업화와 연동된다. 산업화 시대 아동의 재발견은 이러한 요구 속에서 형성되었다. ‘대화모임’의 학술적 논의들은 빈부격차의 문제 대신 중산층 이상의 계층적 요구 속에서 아동 보호론을 전개시켜 나갔다.⁴³⁾ 이는 산업화 시대의 윤리를 대변한 것으로, 그에 부응하는 목표와 대상을 찾는다. 가난과 착취와는 무관한 아동의 행복과 권리를 말하면서도 교육의 효율성을 수단으로 삼아 시대에 요구에 부응하는 아동의 정체성을 구현하려는 것이 학술 담론 담론의 목표였다.⁴⁴⁾ 아동은 훈육의 대상이자 학습의 주체가 되며, 그 목표는 아동 내부가 아닌 외부, 즉 어른들의 다짐과 기획 속에 놓인 것이다.

이런 논의는 1970년대에도 지속되면서 점차 능동적인 통제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대중매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의 내면과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논리가 제출된 것이다. 입시를 중심에 둔 교육/학습 논의가 제도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정서 교육은 내면의 문제에까지 파고든다.

어린이에 대한 정서교육이란 어린이들의 원색적인 감정의 정동을 순

43) 1957년 <어린이 현장>에는 7조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1988년 개정 현장에서는 빠졌다. 이에 대해 실제 굶주리는 어린이가 많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어린이 운동의 퇴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주영, 『뒷걸음한 대한민국 어린이현장』, 『어린이 문화 운동사』, 보리, 2014.

44) 과학성에 관한 논의는 정범모, 앞의 글 참조.

화시키는 일, 다시 말하면 지적 뒷받침을 주어 섬세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의 정서로 하여금 물거품 같은 흥분상태로 부글거리게 하지 않고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직감할 수 있는 감동력으로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이런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감동력은 심미적 정서, 도덕적 정서, 종교적 정서로까지 발전됩니다.⁴⁵⁾

훈육 받지 못한 아동이란 원색적인 감정과 정동을 지닌 존재로, 이를 교육을 통제·문명화하지 않고서는 흥분상태나 미개의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미개에서 교화로, 짐승에서 인간으로 발전시키는 훈육의 이상에서 미와 도덕, 그리고 진리를 강조한 서구 계몽주의의 논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완성된 인격체로 길러진 아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까.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대화모임’의 정치적 진보성⁴⁶⁾에도 불구하고 교육담론의 과학성은 교육적 효과와 정동의 통제를 거친 아동 주체를 기획했으며 그 주체의 상은 산업화 시대의 ‘산업역군’ 혹은 ‘근로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통제와 훈육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자본-권력이 요구한 노동자와 대화모임의 지식인이 바랐던 아동의 주체성의 기획은 근본적으로 동일했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 보호론의 내적 모순의 기원이 된다. 논자들은 만화, 텔레비전 같은 산업화 시대의 대중매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부정성 극복과 정하기 위해서 대중매체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진정

45) 김요섭, 『사회환경과 가정교육』, 『사회발전과 교육이념』(『한국아카데미총서』 6), 삼성출판사, 1975, 100쪽.

46)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주도한 인물은 강원용 목사를 중심으로 한 서북 기독교계열의 인물들이다. 이들은 서북 로컬리티를 공유하는 관계로 맺어진 집단으로서 한국 사회의 진보적 지성과 보수 우파의 공통된 기원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는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느티나무책방, 2017 참조.

한 어린이'로 길러지는 주체화 과정은 다수의 사람들을 국민과 노동자로 호명한 산업화의 윤리와 동일했다. 1960-70년대 한국의 아동론은 어른의 관점에서 아동을 발견하고 다시 산업사회의 틀 속에서 재발견하는 구조였다.

4. 산업화 시대의 윤리와 '반(反)아동'상(像)

1) 어른보다 영악한 아동: 최인호의 「술꾼」, 「모범동화」

시대의 요구에 발견-재발견된 아동이 애초의 기획에 완벽하게 부합하기는 어렵다. 내적인 모순에 의해, 혹은 실천과정의 한계로 인해 재발견된 아동의 모습은 기획을 배반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당대의 문학적 시선이 포착한 것은 우리 사회가 만든 아동에 내재한 모순이었다. 아이 들이란 항상 순진하고, 현실의 욕망에서 자유로운 주체로 상상되지만, 현실에서 그 주체성이 과열되는 모습을 통해 문학은 다시금 아동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소설은 아동의 재발견의 서사를 통해 아동을 전유하려는 주체 윤리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여기서 아동은 어른과 섞여 구분되지도 않을뿐더러 상식적인 상상과 달리 자율적인 주체라는 비밀이 밝혀진다.

최인호의 단편 「술꾼」(1970)은 어른의 상상을 넘어서는 아동 주체의 이야기이다. 소년은 위독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동네 술집을 전전하며 아버지를 찾는다. 소년은 술집에서 어른들의 농지거리에도 당황하는 법 없이 능숙하게 받아칠 정도로 조숙하다. 아버지를 찾는다는 핑계로 술집을 돌아다니며 잔술을 받아먹는 모습은 영악함을 넘어서서 어른을 압도할 정도이다. 소년의 이런 모습에 “압도당한 술꾼들은 멍하니 눈길”⁴⁷⁾만

47) 「술꾼」,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2, 97쪽.

보내며 지켜볼 뿐이다. 그리고 소년은 아버지를 찾는 순례를 통해 점차 어른의 세계와 교섭하기 시작한다. 소년은 어둡고 추한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머리통만 너무 큰 아이라는 것을 깨닫고 술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게 된다. 이때 아버지를 찾는 일은 무의미해지며, 술이 순례의 목적이 된다.

아이는 그 소주의 맛을 알고 있었다. 이제 한 잔 더 마신 후에 자기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막소주 한 잔이 항상 미만의 입 안을 윤택하게 적실 때, 그는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밀도를 더해가는 가도 잘 알고 있었다.⁴⁸⁾

소년은 술을 갈망하며, 술이 삶의 변화시키게 될 것을 알게 된다. 즉 소년에서 어른으로 자라나 술대작을 하며 젓가락 장단도 맞출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소년은 술집을 전전하며 점차 어른스럽게 술을 마신다. 아버지와는 달리 울지 않고 마실 줄도 알게 되었고, 낯선 사내와 농담도 나눈다. 술이 소년을 “자유롭게” 만든 것이다. 급기야 소년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잔술을 사먹기까지 한다. 소년의 당돌한 태도에 여주인은 당황하며 술을 내준다. 술상을 받아든 소년은 이제 어른 행세를 한다. 어린애 우는 소리를 듣고 “아주머니, 내가 클 때까지만 죽디 말라요. 그저 이 짝 물구 참아 보라요.”⁴⁹⁾라고 말하는 소년은 이미 어른이다.

소년의 이런 타락을 술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소년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나선 길에 술을 배워가며 점차 어른의 모습을 흉내 내는 위기의 아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년은 그와 같은 생각마저 넘어선 지점에 있다. 애초에 소년은 고아원에 수용된 고아로, 아버지, 어머니의 사연은 술을 마시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소설의 첫 장면에서 술집 어른은 소년의 태도에 익숙해져 거리낌 없이 한테 어울린다.⁵⁰⁾ 이러한 모습은 근대 아

48) 『술꾼』, 101쪽.

49) 『술꾼』, 108쪽.

동의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배반한다. 어른과 아이가 구분되지 않는 생활 공간의 풍경은 전근대 사회에 가깝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에서 어른과 아이는 사회적 역할과 윤리의 구분 없이 동일한 생활공간 속에서 사회화되었으며, 가족 또한 감정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와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덕적, 사회적 실체였다.⁵¹⁾ 『술꾼』의 술집에서는 술집은 어른과 아이를 갈라놓은 근대성이 중단된다.

술집의 풍경은 소설의 배경인 전후사회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실체이다. 즉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술집이라는 공간에서는 아이와 어른을 구분하는 가족과 사회의 정상성이 새로운 관계에 의해 대체되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물론 이 장면이 아동의 근대성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대적 아동의 주체성은 외적인 조건 속에서 얼마든지 취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후라는 서사 속 시간보다 소설이 쓰인 1970년대의 현실과 더 긴밀히 연관된다. 술을 마시고 어른과 어울리는 아이의 형상은 당대에 요구되었던 아동 보호론과는 전혀 무관하다. 술집의 풍경에서 아동의 순수성이나 어른들이 상상하는 교육적 효과 따위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사이 아이는 이미 완벽한 어른이 되어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른과 구분되지 않는 아동 주체의 가능성은 근대적 아동 담론의 모순을 폭로하는 효과를 지닌다.

『술꾼』의 아이는 아이러니를 통해 폭로의 효과를 냈고 어른과 아이의 구분을 무화시켰다. 여기서 더 나아갈 경우, 아이는 어른의 비밀을 간파하여 어른보다 더 영악한, 그래서 악마적인 아동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모범동화』(1970)에 등장한 괴이한 소년이 그러하다. 이 소년은 학교

50) 소설의 첫 장면은 소년이 술집에서 아버지를 찾고 그에 어른들이 답하는 풍경이다. 어른들은 소년의 등장에 익숙하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난 네가 아버지 질 모시러 온줄 알고 있단다.”, “역시 넌 똥똥이야 한번 가르쳐준 건 잊어먹지 않는 쫄망포시란 말이다.”라는 말은 어른들이 소년의 의도를 알고 있음을 암시한다.

51)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583-584쪽.

앞 잡화상 강씨를 죽음으로 몰아 어른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취하는 악한 인물이다. 『모범동화』에서 어른과 아이는 어떤 접점은 매우 현실적이다. 강씨는 아이들의 되바라진 열망을 역이용하여 아이들을 속이고 돈을 번다.

그는 아이들이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어른들에게서 진실로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도 잘 알고 있었다. 이를테면 아이들은 모두 열쇠구멍으로 어른들을 엿보기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어린애들은 코안경을 높이 세우고 도덕을 역설하던 어른들도 일단 열쇠 구멍을 통해 볼 때는 비루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에 지쳐 있었다. 그들은 열쇠 구멍 저편에서는 변하기 마련인 이론만의 윤리와 도덕을 저주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누구든 어른들의 은밀한 모범을 갈구하고 있었다.⁵²⁾

이때만 해도 강씨의 술수는 아이들에게 우위를 점한 듯이 보인다. 어린이회의 활동에서 보듯 아이들은 어른과 타협할 줄도 알 만큼 영악하지만, 강씨는 이런 속성을 파악하여 거짓 신뢰 관계를 맺고 돈벌이를 이어간다. 그러나 한 아이에 의해서 강씨는 우위를 상실한다. 그 아이는 영악한 아이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어른들의 결정적인 비밀마저 알고 있다. 예컨대 선생님의 말씀마다 “공같이다”라고 토를 단다거나, 현란한 마술쇼에서 속임수를 폭로하여 쇼를 망치기도 한다. 아이들은 그의 말에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내 어른 세계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진다.

“다들 봐라. 얼마나 바보들이냐.”

“그래 정말 바보들투성이구나.”

그 아이는 자기가 바보들 축에 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다짐하듯 과장해서 조소했다.⁵³⁾

52) 『모범동화』, 113쪽.

어른들에 대한 아이들의 조소는 결국 강씨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의 동전을 노리고 만든 찍기 놀이, 주사위 놀이, 십지 놀이 등이 전학 온 소년에 의해 패배함으로써 강씨는 깊은 좌절을 느끼고 자살한 것이다. 소년은 얼마나 영악한지 강씨가 자살할 것이라는 것마저 예견한다.

『술꾼』, 『모범동화』의 주인공 소년은 아이와 어른이 경계(境界) 없는 공간에서 경쟁을 펼치는 공간에 놓여 있다. 어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젓가락 장단을 맞추는 아이, 아이들의 순진함을 이용하는 어른과 대결을 펼쳐 승리하는 아이. 어른들은 관습적으로 아이는 순진하다고 믿지만, 실제 아이들은 어른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것을 넘어선다. 아이들은 어른의 기대 속에서 아동으로 호명되지만 최인호 작품 속 아이들은 어른의 기대를 배반하는 아동, 즉 ‘반(反)아동’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근대성에 의해 타자화된 일반적인 아동과는 달리, 반아동의 주체는 어른과 아이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립된다. 그러나 반아동은 전근대적 미분화의 증거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근대적 가치체제에 대한 유효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근대 사회에서 어른과 아이는 분리된 듯 보이지만 산업사회의 윤리는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질적으로 동일하게 변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것이 술이든 주사위 놀이든 균질하게 적용되는 산업사회에서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무화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으며, 타락한 아이들은 반아동의 주체로서 산업사회의 윤리와 그 모순을 상징적으로 폭로하는 존재가 된다. 『술꾼』, 『모범동화』의 아이들은 세상이 바라는 ‘착한 어린이’를 거부함으로써 시대의 모순된 진실에 다다른 것이다.

53) 『모범동화』, 118쪽.

2) 욕망의 주체로서의 아동: 한수산의 「침묵」

아동이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는 사실은 놀랍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아동과 어른은 동일한 윤리 하에 놓인 주체라는 점에서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산업화의 위기의식으로 아동론이 형성되었지만 아동은 산업화의 세례를 누구보다도 먼저 직접적으로 받았기에 필연적으로 성인 세계를 복제한다. 아동은 어른 못지않은 내면을 가진 주체, 혹은 욕망을 가진 주체이다. 물론 아동이 성적인 욕망의 매커니즘을 통해서 성적 대상을 오롯이 전유하지는 않는다.⁵⁴⁾ 그러나 전이를 통해 유비적으로 세상의 욕망을 체현하고 반복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아동 주체가 사회적 존재로서 지니는 가치인바, 1960-70년대의 사회변동의 산물들이 아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른의 세계로 손쉽게 도약한다.

한수산의 단편 「침묵」(1977)은 19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이 주체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화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아이들 역시 영악하여 어른의 세계를 엿보거나 농락하며, 어른의 기대를 배반하는 쾌락적 주체임을 과시한다.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은 배경이 되는 서울 외곽 신흥 아파트단지라는 구체적 현실과 유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이곳의 아이들은 팽창하는 도시처럼 황량하고 거친 심성을 가진 문제적 주체이다. “이 놈의 시멘트가 물을 이렇게 빨아 먹으니, 애들까지 배리배리해질까 봐 큰일이다.”⁵⁵⁾라는 아버지의 걱정대로 아이들은 아파트 공간 속에서 동심을 버리고 어른의 세계로 나아가는 악한 아동들이다.

54) 이는 정동의 통제 이전 중세 사회의 아동은 어른들의 외설적인 태도에 노출된 아이들일지라도 성적 주체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차이는 다만 사회적 조건에 따른 결과이다. 비슷한 예로 영아사망에 대한 초연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아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인구변동의 요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 아리에스의 분석이다. 필립 아리에스, 앞의 책, 98쪽.

55) 한수산, 「침묵」, 『사월의 끝』, 민음사, 1978. 175쪽.

우리는 그 미국 여자의 아무리 보아도 우리 엄마들 것보다 너무나 커서 무거워 보이는 젖통을 보았고 발가벗은 긴 다리와 그 사이의 머리칼을 보았다. 그리곤 똥꼬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히죽거렸다. 그 미국 사람 중의 한 남자에게서 우리는 문득 주일날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한 벌거벗은 남자를 떠올렸다. 그러나 사진 속의 남자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묶여 있는 남자보다는 많이 살찌 있었다. 그리고 흘러 떨어질 듯한 천마저 감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되자 갑자기 우리는 교회 안의 그 마른 남자에게 부끄러웠다. 그후 우리는 7호집 엄마가 시내에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숨가쁘게 그집 초인종을 눌렀다. “똥꼬책 보자……” 우리가 그애에게 말했을 때마다 7호 아이는 자기 엄마가 이미 외출해 버리고 없는데도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더라도 한 것처럼 꼭 뒤를 돌아다보곤 했다. 우리들은 그림 속의 커다란 젖가슴과 긴 다리와 그 다리 사이에 난 머리칼과 모래언덕처럼 솟아 있는 엉덩이를 보고 있자면 언제나 목이 말랐다. 비로소 실파를 다듬는 가정부 누나가 신문지를 깔고 식당 바닥에 앉아 있을 때 그 희뿌연 허벅지 안쪽을 들여다보며 왜 입안이 메마르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 그림들을 연필로 마구 그어대고 싶은 충동으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⁵⁶⁾

음화(淫畵)의 한 장면은 아이들에게 경이의 대상이다. 그들은 음화를 탐닉하며 어른의 세계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가정부 누나의 희뿌연 허벅지를 탐하는 욕망의 주체가 됨을 자각한다. 이쯤 되면 아이들은 어른의 흥내가 아니라 실제로 어른의 욕망을 오롯이 실천하는 주체가 된다. 아동 보호론에서는 아동의 “감정의 정동을 순화시키고 부글거리는 흥분상태”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⁷⁾ 그러나 이 아파트의 아이들은 음화를 겪고서 얻은 충동을 “마구 그어대고 싶은 충동”으로 표현할 만큼 이제 아이들은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의 주체로 자라난다.⁵⁸⁾

56) 위의 책, 180-181쪽.

57) 김요섭, 『사회환경과 가정교육』, 『사회발전과 교육이념』(『한국아카데미총서』 6), 삼성출판사, 1975, 100쪽.

58) 『침묵』에서 아이들의 주체화는 아동만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순진함으로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재생산하기 시작한다. 욕망이 통제 없이 거듭될수록 아이들의 놀이는 어른보다 더 잔인해진다. 아파트 난간에서 병아리를 던져 죽이는 놀이는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어른들을 속일 만큼 악랄하다.

“뭐할 꺼고? 키워서 알 내 먹을라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7호집 아이가 통명스레 내뱉었다.

“할머니 먹는 거밖에 몰라요?”

그 말에, 우리는 하던 짓을 들킬 뻔한 아이들처럼 참았던 한숨을 길게 토해냈다.

“고녀석. 그럼 키워서 알을 내지 않음 이 작은 걸 잡아먹을래?”

“이런 걸 누가 먹어요.”

7호가 여전히 통명스레 대꾸했다. 그때 3호집 아이가 종알거렸다.

“할머니, 우린 병아리랑 놀아요. 친구한단 말예요.

아이고 똑똑한 것. 그런 얼굴로 할머니는 머리라도 쓰다듬을 듯이 3호집 아이를 보았고 시선을 옮겨 우리들 하나하나를 둘러보았다. 우리는 비로소 사슬에서 풀려난 듯 낄낄 웃었다.⁵⁹⁾

잔인한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에게 병아리를 먹을 것으로 생각하는 어른의 상식은 오히려 순진한 모습으로 역전된다. 영악한 아이들은 순진한 어른을 속이고 자신만의 충동적 유희에 빠져든다. 아이들은 죽지 않은 병아리를 밟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충동적 존재로 변해 있다. 음화를 대

성인과 동일한 보편적 욕망의 주체화의 과정을 체현한다. 그들이 음화를 보면서 예수상을 떠올리는 장면은 예수라는 대타자의 금지라는 윤리성이 타자의 욕망에 영향을 끼친 결과이다. 아이들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오히려 그것에 욕망하는 욕망의 주체화를 겪는 셈이다. 욕망의 주체화에 관해서는 레타나 살레클, 이성민 역, 『사랑과 증오의 도착들』 도서출판b, 2003 및 슬라보예 지젝, 이만우 역, 『향락의 전이』, 인간사랑, 2002 등의 논의를 참조.

59) 한수산, 앞의 책, 185-186쪽.

체한 병아리 놀이는 음화만큼이나 “황홀한 것”⁶⁰⁾이다.

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경험하고 황홀한 충동적 욕망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파트라는 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달리 말해 『침묵』의 아이들의 놀이는 1970년대 산업화의 음화(陰晝)인 셈이다. 이 소설의 표면적 주제는 ‘아파트 속에서 뒤틀려 버린 어린이들의 동심’ 정도가 되겠다. 그러나 이를 수정해야 하는 이유는 서사의 이면에는 어른들의 동심에 대한 기대를 배반하는 아이들이 가진 욕망의 주체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파트의 속성에 동화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충동을 체현하는 주체가 된다. 어른을 배운 후 어른을 넘어서는 것이다. 아동 보호론은 아이의 욕망을 억압하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어른보다 악한 아이들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만든다.

『침묵』은 어른이 상상하는 어린이의 순수함을 배신하고 충동을 실천하는 인물을 통해 어른들과는 무관한 세계를 그렸다. 이 세계는 동심을 배반하지만 어른들의 현실적 이해관계와도 무관하다. 『침묵』의 아이들은 상징 질서와의 동일화를 겪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주체화를 완성한다. 이런 양상은 서술상 주제인 ‘동심의 타락’과는 다른 차원의 주제를 형성한다. 『침묵』의 아이들은 현실적 가치와 연결되지 않은 채 성과 죽음 같은 순수한 욕망을 실천한다. 이런 욕망이야말로 산업화 체제와 길항하지 않는 순전한 비동일성의 주체의 근간이다. 『침묵』은 동심의 타락에 대한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자신들만의 잔인한 놀이에 탐닉하는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아동 주체를 형상화했다. 이런 아동은 사회질서 외부에 있는 듯하지만 『침묵』은 어른의 기대와 동심의 타락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아파트를 지목했다. 이는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아동의 비동일성과 의외성이 아파트라는 현실에 내재해 있음을 시사한다.

60) 위의 책, 181쪽.

3) 노동과 분노의 주제: 조정래의 『빙하기』, 『진화론』

최인호와 한수산이 그려낸 반아동상은 어른의 기대를 배반함으로써 지배적 질서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 현실성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즉 상징과 우화적 서술을 통해 반아동상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술꾼』, 『모범동화』는 아동 주체의 정상성, 『침묵』은 비동일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로써 현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렵다. 이들 작품은 산업사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설정했지만 서사 구조가 사실성을 기획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대의 아동의 문제는 상징과 우화를 넘어서는 엄혹한 실체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 현실 중 하나는 착취가 만연한 노동 현장이다. <어린이 현장>이 아동노동의 문제점을 지목하고 적절한 통제와 보호를 강조했다만 실제로는 실효성 없는 선언에 불과했다. 조정래의 1970년대 단편들은 이러한 현실에 초점을 맞춘다. 조정래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하층민을 소설의 소재로 삼았는데, 아동노동과 관련한 작품으로 『빙하기』(1974)와 『진화론』(1977)을 꼽을 수 있다. 여기 등장한 소년들은 구두닦이나 철공장 견습, 혹은 식료품점 점원 등의 최하층의 노동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착취당한다. 예컨대 『빙하기』의 길수는 열 한 살의 나이에 구두닦이 노동에 참여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구두 한 켤레를 닦으면 4원을 먹는다. 나머지 26원에서 운전수들이 10원을 먹고 16원은 끈대의 차지다. 그런데 하루의 책임량이 70켤레다. 일요일도 없이 뛰니까 한달이면 대략 2천 백 켤레 정도가 된다. 그럼 줄 잡아 한달 수입이 8천4백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수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하숙비와 밥값을 떼야 한다. (중략) <正>자가 12개에서 한 획만 빠지면……,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그 때부터는 한끼의 밥을 굶어야 한다.⁶¹⁾

61) 조정래, 『빙하기』, 『황토』, 현대문학사, 1974, 125쪽.

조직의 우두머리인 ‘꼰대’는 갖가지 방법으로 소년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병아리 눈물”⁶²⁾같은 밥값으로 임금을 떼이는가 하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마저도 굶는 일이 다반사며 얻어맞기가 일쑤이다. 특히 길수는 구두닦이 조직의 맨 밑바닥인 ‘구두닦이’로, 착취에 가장 취약한 처지이다. 고된 노동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하지 못할 때 길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나간다. 즉 길수는 ‘구두닦이’로 일하는 사이, 짐꾼 노릇을 하며 가뭇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나 이내 꼰대에게 들켜 무자비하게 폭행당한다. 구두닦이 조직은 노동이 자본으로 축적된다는 점에서 산업사회의 구조와 일치한다. 부당하게 착취당하더라도 길수는 저항할 수 없으며,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무산되고 만다. 꼰대의 자동차에 손자국만을 남긴 채 끌려가는 길수의 모습은 구조적인 착취 하에서 특히 아동노동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착취를 벗어난 삶의 윤리로써 대항하는 것뿐이다. 노동자 조직이 아닌, 일개 아동 노동자의 윤리란 어떤 것인가. 이에 관한 극적인 사례를 『진화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화론』에 등장한 동호는 부모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서사의 주인공이다. 아버지를 잃은 동호는 어린 나이에 노동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곳은 없었다. 철공장에서는 먹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일했지만, 도둑으로 오해받아 내쫓겼으며, 중국집에서는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 가장 비참한 경우는 식료품점 배달원이다. 월급도 인색하거니와 한겨울에 불도 때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호는 악착같이 버틴다. 그러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동호는 쓰러지고 이를 발견한 주인은 숨이 붙어 있는 동호를 근처 쓰레기장에 내다버린다. 구사일생을 목숨을 건진 동호는 동대문시장에서 품을 파는 한편 줌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하다 소매치기의 길로 접어들었다.

냉혹한 현실에 적응해가는 동호의 모습을 두고 작가는 ‘진화’라고 말

62) 위의 책, 113쪽.

했지만, 정확히는 입사(initiation)에 해당한다. 입사 전 동호는 어른들의 수군거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학생 아이였지만, 서울로 간 이후 고생 끝에 생존의 방식을 터득했기 때문이다.⁶³⁾

아냐, 아냐, 이번 여름 개울에서 목욕을 하며 보니까 아버지의 그것도, 그것도 둘 다 멀쩡하던 걸. 모두 거짓말이다. 공갈이다. 하지만……
엄마가 서방질을 해서 도망간 것을 나만 모르지 않았던가. 가분수 나룻
샘보다 어려운 숙제였다.⁶⁴⁾

위의 인용처럼 아버지가 왜 ‘생고자’인지, 어머니가 왜 도망갔는지는 어려운 숙제였지만, 서울의 현실이 이에 답을 준다. 숙소에서 동료의 아랫도리를 주물러줘야 하지만 이내 익숙해지고, 월급을 못 받는다면, 흠쳐서라도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서울살이를 통해 터득한 ‘세상의 이치’이다. 즉 서울에서 겪은 고난은 동호가 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입사 의례였다.

문제는 동호의 입사가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는 점이다. 동호는 세상의 이치를 터득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을 할수록 삶은 궁핍해지고 범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식료품점에서 버려진 후 동호는 동대문에서 뒷박을 숙여 물건을 파는 한편 도둑질로 돈을 모은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건으로 동료의 할머니가 죽고 자신도 소년원에 수감된다. 그의 비극은 소설의 결말부에서 극대화된다. 출소 이후 동호는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여비가 없자 자신을 버린 식료품점 주인을 찾아간다.

63) 입사는 원형적 의미와는 달리 소설의 서사에서는 주인공의 변화와 세상에 대한 적응을 의미한다.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시학』, 학연사, 2002, 321-323쪽. 그 적응의 방향이 근대 사회는 점에 착안한 모레티는 교양소설, 혹은 입사소설은 근원적으로 근대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양식으로 이해한다. 즉 전근대의 광란의 상태와 결별하고 마르크스가 파악한 근대의 생산양식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문학양식이 근대의 교양소설이다. 프랑코 모레티, 성은에 역, 『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263-271쪽 참조.

64) 조정래, 『진화론』, 『한 그 그들의 자리』, 태창문화사, 1978, 197쪽.

그리고는 느닷없는 복수심으로 그녀를 칼로 찌르면서 소설은 끝을 맺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닥친 불가피한 노동의 결말은 이와 같다. 동호의 서사는 그간 펼쳐진 아동 보호론을 정면으로 배반한다.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라는 강령 이후, 아동, 청소년 노동의 보호는 당연한 것으로 상상되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많은 아동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보호는커녕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일이 흔했다. 아동노동의 현실과 강령 사이의 괴리는 아동의 현실 중 가장 문제적인 상황이었다.

『빙하기』와 『진화론』에서 아동은 노동하는 아동이자, 칼을 들어 살인을 저지르는 아동이다. 동호의 마지막 걱정은 앞서 살펴본 아동의 욕망, 충동과는 다른 지점에 있다. 조정래와 같은 사실주의적 시선은 아동 보호론이라는 재발견 담론에 배치되는 현실을 제출했다. 어른 같은 아이, 어른보다 더 영악한 아이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말해지는 것이라면, 길수와 동호는 아동에 대한 기대와 상상이 현실에 어떻게 무화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동호의 마지막 행동은 아이와 어른의 대립 속에서 펼쳐진 욕망/충동이 아니라 보호론의 프레임 속에서 아동을 재발견하려는 담론에 대한 저항이자 아동이 처한 노동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5. 맺음말

산업화 시대는 아동 보호론의 담론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들을 제시하고 아동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려 했다. 이는 아동의 발견인 동시에 시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아동을 재발견하는 과정이었다. 아동은 근대성을 체현하는 주체로, 우리가 상상하는 아동의 본질, 혹은 ‘어린이됨’,

‘어린이스러움’의 기원은 추상적인 형태의 근대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의 아동은 여러 역사적 단계, 민족적, 공간적 특수성에 의해 새롭게 재발견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발견된 아동이 근대성의 보편적 표상이라면, 재발견된 아동은 시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960년대 이후 아동론은 보호론과 비판론의 자장 속에서 형성되었는데, 담론의 생산자인 지식인 그룹은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관여하였지만 아동의 진정한 자주성과 개별성과는 무관한 논의를 이끌었다. 여러 선언과 운동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념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실상에서는 아동을 타자화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의 문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동의 보편적 권리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담론에 내재한 한계와, 여전히 아동을 ‘아이들’ 정도로만 이해하는 어른의 시선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산업화의 윤리와 윤리적 태도는 진보적 아동론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 셈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쪽은 문학이다. 최인호, 한수산, 조정래의 현실적인 시선은 어른의 기대와 산업화의 윤리에 대응하는 아동 주체를 형상화했다. 이들 소설에 등장한 아이들은 순진하고 착하며, 어른의 말을 잘 듣는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의 기대를 배반하는 기이한(uncanny) 모습을 한 ‘반(反)아동’이었다. 술을 먹고 성적인 욕망을 실천하며 노동 현장에서 분노를 표하는 아이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반아동의 존재는 과학과 예술, 혹은 담론과 현실의 길항을 의미하는 동시에 아동-문학에 내재한 중요한 극점을 시사한다. 이 극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상화를 살피는 것이 산업화 시대의 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이다. 아동의 문제를 연구의 주제로 올려놓는 작업은 폭넓은 스펙트럼에 펼쳐진 이 시기 한국문학 연구의 확장을 위한 유용한 참조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조정래, 『황토』, 현대문학사, 1974.

_____, 『한 그 그들의 자리』, 태창문화사, 1978.

최인호,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2.

한수산, 『사월의 끝』, 민음사, 1978.

『경향신문』, 『노동』, 『대화』, 『동아일보』, 『산업과 노동』, 『일간스포츠』,
『조선일보』

2. 논문 및 단행본

권보드래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 상상, 2015.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느티나무
무책방, 2017.

김대근, 「1970년대 한국 명랑만화의 담론분석」,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43,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6, 255-284쪽.

김성환, 「빌려온 국가와 국민의 책무: 1960-70년대 주변부 경제와 문화
주체」, 『한국현대문학연구』 43, 한국현대문학회, 2014, 463-500
쪽.

_____, 「1960-70년대 노동과 소비의 주체화연구: 취미의 정치경제학을
위한 시론」, 『코기토』 81,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544-585쪽.

김태호, 「1950년대 아동문학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연구」, 『한국아동문학
연구』 26,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1-29쪽.

민윤식, 『소파 방정환 평전』, 스타북스, 2014.

박금숙, 「1960년대 초 아동문학에 나타난 시대의식」, 『한국아동문학연구』

- 29, 한국아동문학학회, 2015, 5-27쪽.
- 박인하, 「한국 명랑만화 장르의 형성과 발전 연구」, 『애니메이션 연구』
23,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2, 43-61쪽.
- 서동수, 「아동의 발견과 '식민지 국민'의 기획」, 『동화와 번역』 16, 동화
와 번역 연구소, 2008, 243-271쪽.
- 심경호, 「전근대 시기의 아동관과 아동의 문학」, 『창비어린이』 제5집, 창
작과비평사, 2007, 198-222쪽.
- 안경신,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 운동과 사상』, 학지사, 1999.
- 유민상·박종석, 「한국의 아동노동: 아동노동은 어떻게 이용되고, 규제
되고, 금지되었는가?」,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16』, 초
록우산 어린이재단, 2016, 216-247쪽.
-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시학』, 학연사, 2002.
- 이주영, 『어린이 문화 운동사』, 보리, 2014.
- 임종수, 「텔레비전 안방문화와 근대적 가정에서 생활하기: 공유와 차이」,
『언론과 사회』 12-1,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4, 91-119쪽.
- 장수경, 「『새벗』 게재 아동서사에 나타난 가난에 대한 기억과 승공의 파
토스 - 1960년대 실린 동화·소년소설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문학연구』 12,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3, 7-35쪽.
-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사회발전과 교육이념』(『한국아카데미총서』 6),
삼성출판사, 1975.
- 황우겸, 『바보상자, 방송가의 뒷이야기』, 보진재, 1963.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 레타나 살레클, 이성민 역, 『사랑과 증오의 도착들』 도서출판b, 2003.
- 미셸 푸코, 이광래 역, 『말과 사물』, 민음사, 1987.
- _____, 이정우 역,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00.
- 슬라보예 지젝, 이만우 역, 『향락의 전이』, 인간사랑, 2002.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역, 『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한스 트래슬러, 정창호 역, 『황홀한 사기극』, 이룸, 2003.

Fredric Jameson, *A Singular Modernity: Essay on the Ontology of the Present*, Verso, 2002.

<Abstract>

The Ethics for the Industrial Age and Rediscovery of Children in Korea in the 1970s

Kim, Sung-Hwan*

Children are the subjects found in modern institutions and objects to protection and discipline. As a modern principal, however, children have been newly rediscovered by various historical stages, ethnic and spatial specialities since modernization. If the discovered child is a universal symbol of modernity, the re-discovered child has the personality of a principal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he times. Since the industrialization in Korea, the perception that children are supposed to be protected from the harms of the mass media, and children and adolescent labor have also drawn special social attention. Child protectionism in the 1960s and 1970s has the structure that calls children the other of adult. Adults' power emphasizes the harmful effects of the mass media and defines children as the other, and child protectionism has been submitted as the double of the discourse of negativity. Christian Academy's "Dialogue Meeting" announced a declaration, 'Our commitment for children' to diagnose and solve the situation of children in the early 1970s. However, the declaration is not intended for children's identity, but for adults who discipline and control children. Their criticism leads to the methodology of children's

* Inje University.

education, and some suggested the impractical way to protect children

Some Korean short stories in the 1970s paid attention to children's issues. Choi, In-ho(최인호), Han, Susan(한수산), and Cho, Jung-rae(조정래) depict abnormal children who betray their expectations. Choi In-ho's "The drunken"(술꾼) and "A exemplary children's story"(모범동화) feature a precocious boy who is no different from adults, or a clever boy who overwhelms adults, revealing the ethics and contradictions of an industrialized society. The children in Han, Susan's "Silence"(침묵) is portrayed as deceiving adults and practicing their unique desires and pleasures. They seem to be 'good children', but are found to be the subjects of the desire. Cho, Jung-rae reveals the reality of child laborers who are exploited through works such as "The glacial epoch"(빙하기) and "The Evolutionary Theory"(진화론). Children's labor is a microcosm of an industrial society where exploitation is structured, and working children are threatened with livelihood. In response to this reality, child laborers discover a unique life ethic, an extreme form of rage leading to murder.

Key Words : children as discoveries, rediscovery of children, discipline and control, child protectionism, child labor, 'Our commitment to children', "The drunken"(술꾼), "A exemplary children's story"(모범동화), "Silence"(침묵), "The glacial epoch"(빙하기), "The Evolutionary Theory"(진화론)

■ 논문접수 : 2019년 3월 20일

■ 심사완료 : 2019년 4월 3일

■ 게재 확정 : 2019년 4월 12일